

四象醫學에서 氣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강태곤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What is the Meaning of Qi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ang Tae-Go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kinds & meanings of Qi in Lee Je-Ma's writings.

2. Methods

We analyzed Lee Je-Ma's writings which contain the related contents of Qi's kinds & meanings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re are distinctive Qi features of sorrow · anger · joy · pleasure(哀怒信樂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of seven mode emotions(七情) in 『Gyukchigo(格致藁)』.
- 2) When Water · grain's Qi(臟氣) is the base of the human's Qi, Nature · emotion's Qi(性·情氣) is mana ging. And Lung · Spleen · Liver · Kidneys's Qi(肺脾肝腎氣) is the representative concept resulted by the complex operation of Water · grain's Qi(水穀之氣) and Nature · emotion's Qi. Each Qi stands for its protensity as follows ; Lung's Qi for extorse propensity of Yang(陽), Spleen's Qi for upward propensity of Yang(陽), Liver's Qi for introrse propensity of Eum(陰), Kidneys's Qi for downward propensity of Eum(陰).
- 3) Jang's Qi is more important than medicine's Qi and medicine's Qi has a limitation about recovering jang's Qi. So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one's mind.
- 4) Controlling mind Qi is controlling Nature & emotion's Qi. Thus controlling mind Qi is the best plan for jang's Qi and controlling with medicine's Qi is the next policy.
- 5) Qi influences all aspect of personality, disease, application of medicines and ordinary symptoms. So that Qi is the kernel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ey Words : Qi, Nature & Emotion's Qi, Jang's Qi, Mind Qi, Medicine's Qi

I. 緒 論

갑골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氣'자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해 왔다. 이러한

氣는 宋代의 性理學을 거치면서 理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립되어 철학적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¹⁾. 철학적 氣의 개념은 陰陽五行論, 運氣論, 經絡論, 精氣神血論 등으로 의학적 이론에도 접목되어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 접수일 2006년 10월 31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edu

1)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서울, 2002:47-48.

東武 역시 기존의 氣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나, 기존의 철학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哀怒喜樂을 性과 情에 대입하여 氣의 인 개념을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氣의 철학적 의미에 있어서 孫²⁾ 등이 고찰한 바 있으나 氣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 보기엔 힘든 점이 많다. 또한 氣를 중심으로 四象醫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찾기는 힘들었다. 東武에 있어 性情은 장부대소를 결정하는 인체 생리, 병리의 중심적 개념이다. 따라서 性情에 바탕을 둔 東武의 '氣'는 철학적, 의학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사상의학 이론의 근간이다. 이에 四象醫學을 氣로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하고, 東武 李濟馬의 著書를 분석하여 性과 情에 氣를 붙인 이유, 사상인의 특징, 生理와 病理 및 攝生 등을 氣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性과 情에 氣를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性과 情은 기존 유학에서 氣와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존재이다. 性理學에서 純善한 性이 情으로 발현될 때 惡하게 될 수 있는 이유를 氣의 작용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性理學에선 性과 情을 氣의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다³⁾. 그러나 東武는 哀怒喜樂에 直升, 橫升 放降, 陷降의 氣의 특성⁴⁾을 부여하였으며, 각 체질별 性과 情의 특징을 설명함에 性과 情에 '氣'자를 붙여 사용하였다⁵⁾.

- 2) 孫祥坤, 金達來.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 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 11-39.
- 3) 理氣論이 우주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한다면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理氣論이 곧 性情論이다. 하지만 理氣와 性情의 관계에서 '性則理'가 곧 '情則氣'를 당연화 시키는 명제는 아니다. 인간에서의 氣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情이라기 보다는 氣質의 의미에 가깝다. 氣質 속에 性이 있고, 情은 그 氣質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性理學에서의 性과 情은 모두 氣라고 볼 수 없다.
- 4) 『東醫壽世保元』「四端論」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性氣와 情氣의 직접적 언급은 『格致藁』에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性과 情에 氣의 특성을 부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格致藁』에서도 哀怒喜樂이 거론되므로 『格致藁』에서의 哀怒喜樂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性·情氣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格致藁』「儒略」에선 "仁義禮智의 마음이 性으로 완성되며 하늘을 즐긴다(樂)⁶⁾라고 하였다. 性의 바탕이 되는 仁義禮智는 天機, 즉 天勢, 歲會, 人倫, 地方을 헤아림에 얻을 수 있는 것이며⁷⁾ 또한 天機에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⁸⁾. 즉 天機를 헤아림에 얻어지는 仁義禮智의 마음이 본성의 출발이며, 이는 하늘을 '樂'하게 해준다. 여기서의 '樂'은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性이 발현될 때 天下에 충만해지는 氣運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天下가 濟整을 樂喜하고, 不和不周를 怒哀함을⁹⁾ 언급한 부분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즉 「儒略」에서의 哀怒喜樂은 진리에 대한 세상의 당위적 반응을 氣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哀怒喜樂의 기본적 氣의 특성을 「儒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면, 「反誠箴」에선 哀怒喜樂과 性·情氣적 특징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反誠箴」에선 「儒略」과 같이 仁義禮智가 往來臨立에 있어 天下가 느끼는 것이 哀怒喜樂이라 하여¹⁰⁾ 진리에 대한 세상의 당위적 반응을 哀怒喜樂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反誠箴」은 哀怒喜樂을 '未發之性'(往來臨立之

- 5) 『東醫壽世保元』「擴充論」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 6) 『格致藁』「儒略·6.天勢」仁義禮智之心 成性樂天也
- 7) 『格致藁』「儒略(6.天勢)」圖勢得智 圖會得禮 圖倫得義 圖方得仁
- 8) 『格致藁』「儒略(6.天勢)」天機恒轉 智者見轉 世途恒盪 禮者見盪 人身恒慎 義者見慎 地址恒固 仁者見固 天機恒轉 智者在智 世途恒盪 禮者在禮 人身恒慎 義者在義 地址恒固 仁者在仁
- 9) 『格致藁』「儒略(3.志貌)」天下樂濟 我濟也 斯濟至也 天下喜整 我整也 斯整至也 天下怒不和 我和也 斯和至也 天下哀不周 我周也 斯和至也
- 10) 『格致藁』「反誠箴(2.乾箴)」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之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

性)과 ‘已發之性’(不往來臨立之性)¹¹⁾으로 나누면서 往來臨立의 개념을 가져온 것에 특징이 있다. 往來臨立은 天命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天機와 人事의 문제에 미주쳐야하는 당위적인 人間의 召命이다. 이러한 召命에서 발생하는 것이 哀怒喜樂이며, 哀怒喜樂이 곧 人性인 것이다¹²⁾. 여기서 언급하는 哀怒喜樂은 性과 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함에 來往臨立之命과 不來往不立臨之命으로 구분을 하였다. 來往臨立의 天命은 사람이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人事에서 行하는 命의 의미라면, 不來往不立臨(處獨之命)은 홀로 거처할 때 天機를 知하는 命을 말하는 것이다. 즉 「反誠箴」에서는 진리에 대한 세상의 당위적 반응과 더불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반응을 哀怒喜樂의 氣로 표현하고 있다(Table 1).

『格致藁』의 내용을 유추해 볼 때 哀怒喜樂은 七情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天機와 人事속에서 살아가야 할 召命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내면의 氣의인 표출이다. 하지만 哀怒喜樂의 氣的 표출에도 사람마다의 경향성이 있다. 『格致藁』 「獨行篇」에선 哀怒喜樂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仁義禮智를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 구분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그 경향성을 언급한다¹³⁾.

따라서 『格致藁』에서의 仁·義·禮·智者가 性·情氣의 경향성을 가지는 太少陰陽의 출발이라 보이며, 이는 『草本卷』에서 太少陰陽과 鄙薄貪懦人, 仁義禮智를 연결한 부분에서 명확히 확인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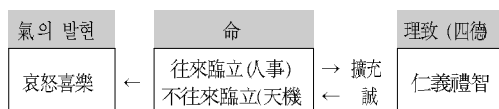
2. 사상인의 특징을 氣로 설명할 수 있는가?

哀怒喜樂의 氣는 直升, 橫升, 放降, 陷降의 특징을 가지며, 氣運의 속성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陰陽의 속성으로 구분하면, 哀怒의 陽氣와 喜樂의 陰氣로 구분할 수 있고, 陽氣인 哀怒는 相成하고, 陰氣인 喜樂은 相資한다. 氣의 발현 방향으로 구분하면 順動發越·緩安)과 逆動(暴發·浪發)의 특징을 가진다.

哀怒喜樂은 陰陽적 속성을 지녀, 기존의 陰陽說과 그 출발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性에서 情으로 발현될 때 相成, 相資하는 것에 대하여, 李¹⁵⁾는 同陽相成, 同陰相資라 하여 ‘陽極生陰, 陰極生陽’하는 기존의 이론과 구분되는 점이라 하였다.

이러한 順動과 逆動적 性·情氣의 특징은 臟腑의 大小를 결정지어 체질적 차이를 만들며, 이렇게 결정된 체질의 性氣는 ‘欲進而不欲退’, ‘欲舉而不欲措’, ‘欲靜而不欲動’, ‘欲處而不欲出’로, 情氣는 ‘欲雄而不欲雌’, ‘欲外勝而不欲內守’, ‘欲內守而不欲外勝’, ‘欲雌而不欲雄’의 특징을 가진다¹⁶⁾. 性氣는 체질별로 ‘欲’과 ‘不欲’이

Table 1. Presented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as Emotion(理致가 命으로 발현 哀怒喜樂)



11) 『格致藁』 「反誠箴(2.乾箴)」, 既有往來立臨之命 則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 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 未發之性也
 12) 『格致藁』 「反誠箴(2.乾箴)」,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即致之慎獨也 致之慎獨 即戒慎恐懼也 致知慎獨 不息而久 則修道之教也
 13) 『格致藁』 「獨行篇」, 仁者顯允, 義者樂易, 禮者整齊

智者闊達..禮者有謀 謀者有忠 審固有收全功之心 故能知緩急之勢..禮者之心 長於成功 識者之能 長於籌略 故其材善統持之勢 而能於解紛而排難 仁者有容 容者有信 雄壯有拯天下之心 故能知強弱之形..仁者之心 長於容衆 量者之能 長於招納 故其材善招納人 而能於範圍大衆 義者有能 能者有立 敦重有定四方之心 故能處遠邇之局..義者之心 長於率身 器者之能 長於地方 故其材善安戢人 而能於撫綏地方 智者有才 才者有勇 寬平有公衆人之心 故能蕩穢陳之猜..智者之心 長於推惠 局者之能 長於任使 故其材善得人之力 而能於順俗而動風
 14) 『草本卷』 「原人·第一統」, 人趨欲心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依陰人)
 15) 李濟馬 原著, 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서울, 1995:54-56
 1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

비대칭적 구조라면, 情氣는 太陽少陰, 少陽太陰의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哀怒喜樂의 氣를 각 체질별로 대비하여 보면, 哀性과 怒情의 太陽人은 直升·橫升의 특징을, 怒性과 哀情의 少陽人인 橫升·直升의 특징을, 喜性과 樂情의 太陰人은 放降·陷降의 특징을, 樂性과 喜情의 少陰人은 陷降·放降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情氣의 逆動하는 개념을 뺀 것으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각 체질별 情氣의 특징을 완벽히 표현 하기는 힘들다. 哀怒가 上焦에서 逆動하면 下焦를 傷하고, 喜樂이 下焦에서 逆動하면 上焦를 傷한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哀氣가 逆動하면 下焦에서 발현되는 樂氣가 손상 받고, 怒氣가 逆動하면 中下焦에서 발현되는 喜氣가 손상 받고, 喜氣가 逆動하면 中上焦에서 발현 되는 怒氣가 손상 받고, 樂氣가 逆動하면 上焦에서 발현되는 哀氣가 손상 받는 것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즉 情氣에 있어 太陽(橫升+放降-)과 少陰(放降+橫升-), 少陽(直升+陷降-)과 太陰(陷降+直升-)의 대칭적 구조를 哀·怒·喜·樂氣의 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逆動이 없는 性

Table 2. The Character of Nature & Emotion of Each Constitution(체질별 性·情氣의 특징)

| 體質 | | 性 | | 情 | | |
|------|---|-----|-----|----|-----|-----|
| | | | | 順 | 逆 | |
| 太陽 | 陽 | 哀 | 直升+ | 怒 | 橫升+ | 放降- |
| 少陽 | | 怒 | 橫升+ | 哀 | 直升+ | 陷降- |
| 太陰 | 陰 | 喜 | 放降+ | 喜 | 陷降+ | 直升- |
| 少陰 | | 樂 | 陷降+ | 樂 | 放降+ | 橫升- |
| 陰陽區分 | | 非對稱 | | 對稱 | | |

주) + 氣의 원활한 발현 - 손상 받는 氣

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

氣는 陰陽적 특징은 가지지만 각 체질별 대칭적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情氣는 逆動할 수 있으므로 한 체질의 장점이 다른 체질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의, 자기의 내면 속에서의 장점을 自反하여 邪心을 경계하고자 하는 內面的 自省의 性氣의 논리와, 자신의 단점을 남의 장점에서 보완하여 怠行을 경계하고자 하는 外向的 自省의 情氣의 논리와도 일치한다¹⁷⁾. 즉 哀怒喜樂의 氣를 근거로 체질별 性·情氣를 분석하여도 性情의 知行論적 특징과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性·情氣의 인 특징은 생리적, 병리적 상황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데 東武는 이를 形氣¹⁸⁾ 詞氣¹⁹⁾, 氣象²⁰⁾ 등으로 언급한다.

사상체질 나뉠의 근원이 性·情氣라면, 그러한 性·情氣는 다시 外面的 氣象으로 발현되고, 그러한 性·情氣와 氣象을 바탕으로 체질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체질별 질병을 辨

1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壯 不能進也 少陽之舉 量可而舉也 自反其力而不固 不能舉也 太陰之靜 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 不能處也...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18) 『草本卷』 「病變·第三統」 命脈在外感中分者 一年間 或間間六三日溫寒肢節之病 或七八日枕席呻吟之病 或一二月面貌如沫滯 而一年十二月間九月則形氣快健 神色潤澤... 命脈在內傷中分者 一年間 或數十日枕席呻吟 或三四月面貌萎悴 而十二月間六月則 形氣完健 神色清鮮.

「病變·第五統」 少陽人重病中 膚肉肥而形氣萎憊者 非危症也 卽安症也 膚肉瘦而精神醒爽者 非差症也 卽燥症也 少陰人重病中 面色紫而形氣煩懣者 非凶症也 卽吉證也

19)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陰人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20)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陽人體形氣像 腦佳頁 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佳頁 之起勢 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證할 수 있다. 이러한 체질별 性·情氣와 氣象을 龍馬牛驢에 비유하기도 한다²¹⁾. 또한 五行의 사고의 氣 개념을 들어 『金匱秘方』에선 ‘太陽人-金, 太陰人-水, 少陰人-木, 少陽人-火’²²⁾로 배속하였고, 『東醫四象要訣』에선 ‘太陽人-金, 太陰人-木, 少陰人-水, 少陽人-火’의 배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草本卷』에선 肺脾肝腎을 ‘肝-木, 肝-金, 脾-火, 心-土, 腎-水’²³⁾로 배속하기도 하였으나, 五行배속의 일치성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五行의 특성과 四象과의 연결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보인다.

3. 사상인의 生理를 氣로 설명할 수 있는가?

臟腑의 大小는 性·情氣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性·情氣에 의하여 前四海와 後四海를 擴充시켜 생리적 기능을 다하게 한다. 따라서 性·情氣는 단순히 臟腑의 大小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臟腑의 기능에도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哀喜의 直升과 放降은 肺와 肝의 氣로 발현되면서 直伸, 栗包의 기능을 가진다. 直伸과 栗包는 通神氣, 收血液하는 작용으로 구체화되고, 이는 開闔하는 氣의 특성을 지녀 인체에서 氣液代謝를 주관하게 된다. 또한 怒樂의 橫升과 陷降은 脾와 腎의 氣로 발현되어 寬緩, 溫畜의 기능을 가진다. 寬緩과 溫畜은 化收穀, 汰糟粕하는 작용으로 구체화되고, 이는 出納하는 氣의 특성을 지녀 인체에서 水穀代謝를 주관한다²⁴⁾. 哀怒와 喜樂으로 구분되는 性·情氣의

Table 3. The Character of Lung, Liver, Spleen and Kidney (肺·脾·肝·腎氣의 특징)

| 四黨 | 氣 | 特徵 | | 生理代謝 |
|----|-----|--------|----|------|
| 肺 | 直而伸 | 呼散-通神氣 | 開闔 | 氣液代謝 |
| 肝 | 寬而緩 | 吸聚-收血液 | | |
| 脾 | 栗而包 | 納積-化水穀 | 出納 | 水穀代謝 |
| 腎 | 溫而畜 | 出放-汰糟粕 | | |

陰陽적 특징을 臟氣에 대입하여 비교하면 肺와 脾가 陽的인 특징을, 肝腎이 陰的인 특징을 가지지만 그 기능적 특징에 있어선 肺氣와 肝氣, 脾氣와 腎氣가 有機的인 관계를 가진다(Table 3).

溫熱涼寒하는 水穀之氣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의 上升, 停蓄, 消導, 下降하는 기능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水穀之氣를 바탕으로 형성된 前四海의 淸氣는 耳目鼻口를 통하면서 後四海를 형성한다. 後四海의 淸汁은 肺脾肝腎으로, 濁滓는 皮筋肉骨로 들어가게 된다. 前四海의 氣는 다시 그 원천인 胃脘, 胃, 小腸, 大腸을 補益하고, 後四海의 氣는 頭手腰足의 直伸, 能收寬防, 強屈하는 氣의 특징으로 皮筋肉骨을 단련한다.

즉 溫熱涼寒의 氣는 각 氣의 특징을 橫的으로 발현하여 각 黨의 기능을 유지하고, 縱的으로 水穀의 攝取와 排泄를 주관하여 縱橫的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水穀之氣(溫熱涼寒)는 인체 물질적 근원이라 볼 수 있는 前四海와 後四海를 형성한다.

즉 인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氣는 水穀之氣(溫熱涼寒)의 縱橫적 발현으로 나타나며 이로서 각 黨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각 黨은 性氣(聽視嗅味), 情氣(哀怒喜樂)로 확충된다. 水穀之氣가 물질적 에너지의 개념이라면, 性·情氣는 물질적 에너지를 운영하는 의미가 강하다.

橫的인 방향으로 볼 때 水穀之氣와 臟氣는 溫-上升-直伸, 熱-停蓄-栗包, 涼-消導-寬緩, 寒-下降-溫蓄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결한 각각의 氣의 특징에 일관성

21) 『東醫四象新編』「四象辨論」太陽人...性情則有暴怒深哀欲進而不欲退龍之性 太陰人...性情則有浪樂深喜欲靜而不欲動牛之性 少陰人...性情則有浪喜深樂欲處而不欲出驢之性 少陽人...性情則有暴哀深怒欲舉而不欲措馬之性
 22) 『金匱秘方』「四象演義」太陽人 以金氣成局...太陰人以水氣成體...少陰人 以木體成局...少陽人 以火局成體
 23) 『草本卷』「原人·第五統」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水
 24) 『東武遺藁』「下篇·雜藁」脾化收穀 而腎汰糟粕 脾腎者 出納之府庫也 肺通神氣 肝收血液 肺肝者 開闔之門戶也... 肺大 呼散之氣太過也 肝小 吸聚之氣不足也 肝大 吸聚之氣太過也 肺小 呼散之氣不足也 脾大 納積之氣太過也 腎小 出放之氣不足也 腎大 出放之氣太過也 脾小 納積之氣不足也

Table 4. The Main Concept of Nature & Emotion's Qi, Water & Grain's Qi, Lung, Liver, Spleen and kidney's Qi(性·情氣, 水穀之氣, 肺脾肝腎氣의 총괄개념)

| | | | | | | | | | |
|----------|------------------|------|----|-----|---------|---|----|--------|------------|
| | | 氣 근원 | | | | | | | |
| 肺 | 開 闢 升 降 | 直伸 | 聽 | 津 ↔ | 溫(上升) ↔ | 膩 | 哀 | 氣 激 | 陽氣 (相成) |
| 脾 | | 栗包 | 視 | 膏 ↔ | 熱(消導) ↔ | 膜 | 怒 | | 陰氣 (相資) |
| 肝 | | 寬緩 | 嗅 | 油 ↔ | 涼(停畜) ↔ | 血 | 喜 | | 陰陽적 氣 |
| 腎 | | 溫畜 | 味 | 液 ↔ | 寒(下降) ↔ | 精 | 樂 | | |
| 黨의 통합적 氣 | | | 性氣 | ↔ | 水穀之氣 | ↔ | 情氣 | | |
| 氣의 運用 | | | | | | | | | |

이 없다. 따라서 直伸, 栗包, 寬緩, 溫畜을 바탕으로 하는 開闢, 升降의 氣는 단순히 각 臟의 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水穀之氣와 性·情氣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현되는 각 黨의 대표적 氣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四黨의 氣와 性·情氣, 水穀之氣 모두 陰 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 哀怒喜樂의 直升, 橫升, 放降, 陷降의 氣적 특징은 陽에서 陰으로 순서로 보여진다. 하지만 <直伸, 栗包, 寬緩, 溫畜>, <上升, 消導, 停畜, 下降>, <聽, 視, 嗅, 味>, <哀, 怒, 喜, 樂>를 모두 <陽中陽, 陽中陰, 陰中陽, 陰中陰>의 순서로 배열할 수는 없다. 이는 氣의 방향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肺黨과 脾黨에서의 氣는 모두 陽적인 속성을 지니나 肺黨은 陽의 外向性을 脾黨은 陽의 上升性을 대표하며, 肝黨과 腎黨에서의 氣는 모두 陰적인 속성을 지니나 肝黨은 陰의 內向性을 腎은 陰의 下向性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氣液代謝는 人體氣의 內外 조절을 주관하고, 水穀代謝는 人體氣의 上下 조절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Table 4).

4. 사상인의 病理를 氣로 설명할 수 있는가?

東武는 『草本卷』에서 臟氣가 事物과 應하고, 酒色에 傷하고, 居處行身에서 고달프게 되므로 居處, 行身, 夫婦, 長幼 등의 일들이 질병과 관계됨을 말한다²⁵⁾. 또한 『東醫壽世保元』에

25) 『草本卷』「病變·第一統」問 居處行身夫婦長幼等事有關疾病乎 曰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爲酒色

서 臟氣의 손상은 주로 각 체질의 過한 性·情氣에서 발생함을 말한다²⁶⁾. 그러나 病을 예방하기 위해 東武는 過한 性·情氣 뿐만 아니라 부족한 性·情氣의 무리한 발현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東武는 性氣는 表氣를 傷하며, 情氣는 裏氣를 상함을 말한다²⁸⁾. 이에 관하여 趙²⁹⁾의 부위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 朴³⁰⁾의 篇名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고 등³¹⁾의 性氣의 深着, 情氣의 爆發, 促急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性·情氣와 表裏病과의 관계를 氣의인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性·情氣와 表裏病과의 관계를 더욱 단순화 시켜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性氣는 耳目鼻口가 天

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

- 26) 『東醫壽世保元』「四端論」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 27) 『東醫壽世保元』「四端論」太陽少陽人 但恒戒哀怒之過度而不可強做喜樂 虛動不及也 若強做喜樂而煩數之則喜樂 不出於真情而哀怒 益偏也 太陰少陰人 但恒戒喜樂之過度而不可強做哀怒 虛動不及也 若強做哀怒而煩數之則哀怒 不出於真情而喜樂 益偏也
- 28) 『甲午本』「太陽人內觸小腸病論」太陽人 噎膈病 太重於解體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 深着則傷表氣 怒心 暴發則傷裏氣 故 解體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 然則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膈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佳頁 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曰然
- 29) 趙晃盛. 性情과 表裏證 과의 關係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 30)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1994;6(1):81-87.
- 31) 高우석,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의 발생기전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2):44-57.

Table 5. The Constitutional Disease and Character of Qi(체질별 病과 素證의 氣의 특징)

| 體質病 | 生理 | 病理 | 治法 | 臟氣旺 | 腸氣虛弱 | 臟氣生發之徵 |
|------------|------------|--------------|------|------|-------|-------------|
| 太陽人 肝 病 | 開氣多 闔氣少 | 呼散太過 吸聚不足 | 宜塞不通 | 噫響累發 | 外腎冷 | 喜冷飲水 |
| 少陽人 腎 病 | 升氣多 降氣少 | 納積太過 出放不足 | 宜降不升 | 放氣出緩 | 膝脛惡寒 | 喜冷飲水 病氣浸 |
| 太陰人 肺 病 | 闔氣多 開氣少 | 吸聚太過 呼散不足 | 宜通不塞 | 噯氣出張 | 肩肉瘦 | 喜冷飲水 |
| 少陰人 脾 病 | 降氣多 升氣少 | 出放太過 納積不足 | 宜升不降 | 咳靜時快 | 百會穴惡風 | 喜冷飲水 |

機에서 外的인 氣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면, 情氣는 肺脾肝腎이 人事에서 자신의 內的인 氣를 능동적으로 行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外氣를 받아들이는 知的인 개념인 性氣는 外感으로 인한 表病을 유발하고, 內氣를 表出하는 行的인 개념인 情氣는 內觸으로 인한 裏病을 유발한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前四海의 淸氣를 提出하여 後四海를 확충시키는 性氣와, 後四海의 淸汁을 吸得하여 前四海를 확충시키는 情氣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즉 性氣로 인한 表病이 後四海에도 영향을 미치고, 情氣로 인한 裏病이 前四海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表病과 裏病의 발현에 있어 위치적 구분이 애매해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朴³²⁾과 곽³³⁾이 밝혔듯이, 東武의 病證에 대한 이해가 『甲午本』에서 表裏의 이론적 구분 중심에서 『庚子本(辛丑本)』으로 오면서 체질별 病證의 발현특징 중심으로, 좀더 실제적이며 실증적으로 변천해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性·情氣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각 체질별의 병은 偏小之臟의 氣 부족을 중심으로 발생된다. 太陽人은 開氣多, 闔氣少한 생리적 특징으로 呼散太過, 吸聚不足의 氣의 병리를 나타내므로 宜塞不通의 治法이 적용되고, 少陽人은

升氣多, 降氣小의 생리적 특징으로 納積太過, 出放不足의 氣의 병리를 나타내므로 宜降不升의 治法이 적용되고, 太陰人은 闔氣多, 開氣少한 생리적 특징으로 吸聚太過, 呼散不足의 氣의 병리를 나타내므로 宜通不塞의 治法이 적용되고, 少陰人은 降氣多, 升氣少한 생리적 특징으로 出放太過, 納積不足의 氣의 병리를 나타내므로 宜升不降의 治法이 적용된다³⁴⁾. 또한 東武는 각 체질별 病證으로 臟氣의 왕성함을 알 수 있음과, 腸氣가 虛弱함을 판별할 수 있는 증상, 喜冷飲水를 통한 臟氣生發의 징후의 판별 등을 『草本卷』에서 설명한다(Table 5)³⁵⁾.

34) 『東武遺藁』「下篇·總論」肺以開 肝以闔 肺肝者開闔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也...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高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熊膽麝香麻黃杏仁山藥桂梗黃芩角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葡萄木瓜黃芪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葡萄黃芪甘草五加皮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參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黃連澤瀉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柏山茱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參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

35) 『草本卷』「病變·第五統」少陰人病中 咳靜時快則脾氣旺也 太陽人病中 噫響累發則 肝氣立也 太陰人病中 噯氣出張則 肺氣不抑也 少陽人病中 放氣出緩則 腎氣不促也... 太陽太陰少陰人 喜飲冷水者 臟氣生發之徵也 少陽人 喜飲冷水者 病氣橫侵之兆也...少陰人 腸氣虛弱則 百會穴必惡風 少陽人 腸氣虛弱則 膝脛必惡寒 太陰人 腸氣虛弱則 肩肉必瘦

32)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1994;6(1):81-87.

33) 곽정규, 손은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 體質 病證 中 表病 과 裏病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1.

각 체질의 질병은 過한 氣를 억제하고 부족한 氣를 補充하는 治法을 사용하지만, 過한 것을 억제하는 방법보다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治法을 적용하기 위해선 偏小之臟의 氣를 도와 줄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약물의 氣의 특징을 東武는 馨臭液味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표적 약물을 제시한다³⁶⁾. 이러한 藥氣의 특징은 『草本卷』에선 固中, 溫裏, 通外, 清腸으로 표현되며³⁷⁾, 『東醫壽世保元』에선 升降緩束으로 표현한다³⁸⁾. 『東武遺藁』의 藥氣의 설명은 氣味的인 면에 집중하였다면, 『草本卷』에선 藥氣의 구체적 作用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선 藥氣의 작용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藥氣의 종합적 분석이 東武가 인식한 인체 生理 및 病理를 파악함에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Table 6).

Table 6. The Character of Constitutional Medicine Qi(체질별 藥氣의 특징)

| 臟 | 氣 | 藥氣의 特徵 | | |
|---|---|--------|-----|--------|
| | | 東武遺藁 | 草本卷 | 東醫壽世保元 |
| 肺 | 馨 | 輕清而浮 | 固中 | 束 |
| 脾 | 臭 | 猛烈而壯 | 溫裏 | 升 |
| 肝 | 液 | 綠淫而緩 | 通外 | 緩 |
| 腎 | 味 | 深吸而入 | 清腸 | 降 |

太陽人 腸氣虛弱則 外腎必冷
 36) 『東武遺藁』「下篇·總論」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歸於肝 味歸於腎
 『東武遺藁』「下篇·雜藁(少陽人 禁忌)」藥物之性 厚馨者 歸於肺 厚臭者 歸於脾 厚沃者 歸於肝 厚味者 歸於腎 是故 黃柏木通山茶萸等屬 其味深吸 而入於腎 麥門冬五味子石菖蒲等屬 其馨輕清 而浮於肺 官桂附子白朮當歸等屬 其臭猛烈 而壯於脾 蕎麥葡萄木瓜等屬 其液綠淫 而緩於肝 以此而推 則百草可當而知之也
 37) 『草本卷』「病變·第六通」太陰之藥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 宜清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 宜固中而不宜通外 少陰之藥 宜溫裏而不宜清腸
 38)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蓋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 而必有升降緩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後之謹厚而好活人者

病의 증세에 따라 重한 病엔 重한 藥을, 輕한 病엔 輕한 藥을 사용한다. 아무리 氣의 특징이 맞는 약물이라도 약의 強弱이 병의 輕重에 맞지 않으면 臟氣를 취약하게 할 수도 있으며³⁹⁾, 오래 먹을 수 있는 담담하고 평이한 약이라도 간간이 약의 복용을 중지함이 臟의 본래 기운을 편안하게 한다⁴⁰⁾. 또한 臟氣가 주가 되고 藥氣가 객이 되므로 사람을 보지 않고 병의 치료에만 집착하여 강한 氣의 약물을 여러 차례 사용해서는 안 된다⁴¹⁾. 이러한 이유로 朴⁴²⁾은 東武의 自我中心的 疾病觀에 따른 包括的 疾病管理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東武는 藥氣로 부족한 臟氣를 補益할 수도 있지만 강한 藥氣만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또한 攝生을 통하여 藥의 기운과 臟의 기운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여, 藥氣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다⁴³⁾. 따라서 체질의 辨別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약을 쓰더라도 병세가 더 심해지는 것은 臟氣가 다른 것으로 그 병은 고치기 힘들다고 하였다⁴⁴⁾. 藥氣의 한계는 ‘生息充補之道’로 보충 할 수가 있지만 한번 병이 발생한 후 섭생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⁴⁵⁾, 幼年에서 老年으로 갈수록 생

39)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可以服藥 無病者不可以服藥 重病可以重藥 輕病不可以重藥 若輕病 好用重藥 無病者 好服藥 臟氣脆弱 益招病矣
 40) 『草本卷』「病變第六統」麥苓杞菊等藥 性淡平 有病可以久服常服 而亦有時間斷 以安臟本常之氣
 41) 『草本卷』「病變·第六統」臟氣主也 藥氣客也 臟氣三倍而藥氣一倍則 其病即通也 臟氣二倍而藥氣一倍則 藥力易達也 臟氣與藥氣相敵則 勝負之數未可知也 臟氣與藥氣對敵則 倒戈之變可立待也 所以少陽之水銀不可以輕用 少陰之麥附不可以屢用
 42) 朴恩慶.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研究 東國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66-72.
 43) 『草本卷』「病變第六統」塗壁之客土與主土 不成完全合則 數三月後 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不成完全合則 一半年後 藥氣與臟氣俱渴 故峻補輕粉參茸等藥不可屢用 用之者 一二年間尤極攝身 期于藥氣與臟氣完全 然後保無虞 禍生于所易 病加于少愈者 非此之謂乎
 44) 『草本卷』「病變·第五統」太陽病 以太陽藥投之 而病勢益劇 有加無減者 臟氣已渴 而其病不治 太陰少陽少陰倣此
 45) 『草本卷』「病變·第三統」是故 中年四十 命脈在牢獄未分者 自非清淨道士之心而別被調治則 十分必危 若當下不死而能經歷病變 命脈稍復則 七十壽亦可期 然道士清淨之調治而豈容易哉 如此者千萬人

리적으로 보충되는 臟氣에도 한계가 있다⁴⁶⁾.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壽命이 결정된다.

5. 사상인의 攝生을 氣로 설명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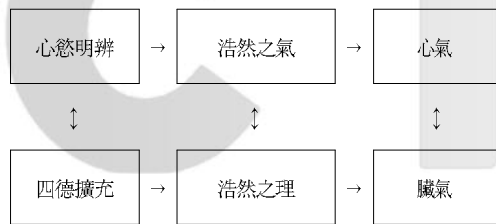
氣는 몸을 채우고 있으며, 외부로 발현되어 인체의 생리 및 병리적 관점에서 氣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哀怒喜樂의 부적절한 발현을 경계하는 것에서 볼 때, 원활한 氣의 운용에는 마음과 氣의 조화로운 만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東武는 부적절한 思慮는 氣를 소모하고⁴⁷⁾, 착하게 생각하는 것과 삼가 행동하는 것이 血液의 순환과 氣를 순조롭게 한다하여 마음과 氣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⁴⁸⁾.

氣와 조화를 이루는 마음 씀씀이는 恭敬이다. 恭敬(誠信)은 哀怒喜樂의 중을 지키는 것이며⁴⁹⁾ 생활과 동떨어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飲食, 依服, 筋力, 財物 등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절도 있는 일상생활이 恭敬하는 것이며, 恭敬하면 壽命이 늘어난다. 東武는 이러한 공손한 마음이 心氣를 길고 멀리 가게 만든다고 하였다⁵⁰⁾.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心氣는 개인의 차원의 넘어 백성의 壽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하여, 心氣의 중요함을 언급한다⁵¹⁾.

中或一人
 46) 『草本卷』「病變·第二統」命脉 雖間有損傷 六十四歲前 皆有生息充補之道 但老年不如壯年 少年不如幼年 少年生息得幼年四分之三 壯年生息得幼年四分之二 老年生息得幼年四分之一 故平人以四十歲爲中年 極壽人以六十歲爲中年
 47) 『東醫壽世保元』「少陰人胃受寒裏寒病」嘗見少陰人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一二日 則必腹痛泄瀉
 48) 『草本卷』「原人·第三統」善思可也 敬行可也 善思不綻 敬行不殆 善思醫也 敬行藥也 善思活血 敬行順氣則 可也
 49) 『草本卷』「原人·第三統」是故 恭敬也已矣 誠信也已矣 喜怒哀樂 未發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喜怒哀樂 既發而不強懼者 非誠實之德乎 未發而預備者 非中之謂乎 既發而不強懼者 非節之謂乎
 50) 『草本卷』「病變·第一統」凡人恭敬則益壽 怠慢則減壽 飲食 以能忍飢而不貪飽 爲恭敬 衣服 以能忍寒而不擇溫 爲恭敬 筋力 以能節勞而不便逸 爲恭敬 財物 以能忍乏而不苟得 爲恭敬 蓋恭敬則心氣長遠 怠慢則心氣短促 長遠者壽 短促者不壽 裡勢然也
 51) 『草本卷』「病變·第六統」問 人之心術善惡 有關壽夭乎 曰 一國之中心術善者持國則 一國心氣皆活發

마음은 지극히 신령스러워 스스로를 속일 수 없으므로 먼저 마음을 다스림이 臟氣를 편안하고 활발하게 한다⁵²⁾. 이러한 신령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 마음을 責하는 것이다. 마음의 밝고 어두움이 비록 자연히 그런 것 같으나 責하는 자는 맑고 責하지 않는 자는 흐리다⁵³⁾. 마음을 責하는 것은 性·情氣를 조절함과 다름이 없다. 즉 哀怒喜樂의 未發에 恒戒하고, 已發에 自反함이 곧 心氣를 다스리는 것이다⁵⁴⁾. 孟子는 氣는 몸에 충만해 있지만 그 氣의 好惡은 어떠한 마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을 말하며, 浩然之氣의 중요성을 말한다. 東武는 孟子의 浩然之氣를 발전시켜 浩然之氣와 더불어 浩然之理를 말한다. 仁義禮智의 臟氣가 충만하면, 浩然之氣가 나오고 鄙薄貪懦의 心氣(心慾)을 明辨하면 浩然之理가 나옴을 말한다. 즉 心氣가 다름이 아니라 臟氣를 확충시키는 것이고, 臟氣의 확충이 다름이 아니라 心氣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Table 7).

Table 7. The Relationship of Jang's Qi and Mind's Qi(臟氣와 心氣와의 관계)



주) 鄙薄貪懦의 心慾은 仁義禮智를 擴充을 통하여 明辨된다. 따라서 浩然之理와 浩然之氣는 의미상 같다고 볼 수 있다.

而人民多壽 心術惡者持國則 一國心氣皆窘促而人民多天 一邦一鄉一家亦然
 52) 『草本卷』「病變·第六統」人心至靈 雖欲自欺 終不欺得 故有憂患則變通之 然後臟氣安活也
 53) 『東醫壽世保元』「性命論」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責之者 清 不責者濁
 54) 『東醫壽世保元』「四端論」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Ⅲ. 結 論

인간사회가 존재함에 당연히 그에 따른 질서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질서가 있다면 그에 반한 무질서가 존재함이 어쩔 수 없는 인간사회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서의 필요함을 알고 그 질서를 따르려한다. 東武는 인간사회를 天機와 人事로 구분한다. 또한 질서의 근간을 仁義禮智에 두었으며,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命이라 하였다. 仁義禮智가 발현됨을 좋아하고, 仁義禮智가 없는 무질서를 싫어함은 누구에게나 같다.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哀怒喜樂으로 표현한 것에서 東武의 독창성이 시작된다. 東武에 있어 哀怒喜樂은 인간의 감정 차원이 아니다. 天機와 人事의 召命에 반응하는 인간 존재에 바탕을 둔 氣이다. 즉 인간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哀怒喜樂의 氣를 가지게 마련이고, 哀怒喜樂의 氣를 표출하여야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인간 존재의 탐구는 性과 情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성리학의 윤리가 지배 하였던 시대를 살았던 東武는 자연스럽게 性과 情에 哀怒喜樂을 대입시켰으리라 보여진다. 하지만 東武는 시대의 이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도구로 性과 情을 가져왔다. 哀怒喜樂에서 출발한 性과 情은 더 이상 성리학의 性과 情의 범주가 아니다. 東武에 있어서 性과 情은 단순한 心性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本性도 아니다. 이는 바로 인간이 天機와 人事에서 표출하는 氣이다. 東武는 氣의 발현을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체 생리에까지 영역을 넓힌다. 인간의 존재조건에 기반을 둔 性氣와 情氣가 몸과 마음에 동시에 작용함은 어찌 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性氣와 情氣에 경향성을 부여함이 東武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太少陰陽人은 性氣적, 情氣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과 溫熱涼寒의 水穀之氣가 합쳐서 인체 生理인 氣液代謝와 水穀代謝가 이루어진다. 경향성을 가진 性氣와 情氣에서

출발한 인체 生理 또한 당연히 경향성을 가지며, 인체 生理에 바탕을 둔 病理 또한 氣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藥의 氣 또한 그러한 경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인체 生理에서 病理 심지어 치료에 이르기까지 氣의 작용은 일관적이다. 즉 체질별 氣를 파악하고 조절함이 건강이 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藥氣가 인간의 건강과 천수를 보장하는가?, 藥氣로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東武는 '아니다'라고 확답을 한다.

인간의 生理, 病理 및 疾病治療의 핵심인 氣는 性氣와 情氣이며, 이는 인간의 존재적 氣인 哀怒喜樂에 바탕을 둔다. 하지만 哀怒喜樂의 氣는 존재 조건일 뿐이다. 질서의 인식이 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듯이, 哀怒喜樂의 氣를 표출하는 것만으로 참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哀怒喜樂의 발현은 인간에 달렸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선 哀怒喜樂을 조절함은 당연하다. 東武는 哀怒喜樂의 조절의 방법으로 未發과 已發에 恒戒하고 自反함을 제시한다. 이는 곧 仁義禮智를 알고(知) 그에 따라 행동하는(行) 것일 것이다.

哀怒喜樂의 性氣와 情氣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한다면, 건강, 질병, 치료의 궁극적 해결책은 哀怒喜樂의 氣에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鄙薄貪懦를 明辨하여 仁義禮智를 확충함이 곧 心氣의 조절이자 臟氣의 조절이다.

총괄해 볼 때 사상의학에 있어 氣는 哀怒喜樂에서 출발하여 체질결정 및 사상인의 生理, 病理, 用藥 攝生에 모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Ⅳ.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李濟馬.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

4. 李濟馬. 池圭鎔 譯解 格致藁譯解. 永林社, 서울, 2001.
5.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서울, 1929.
6. 李濟馬. 량병무, 차광석 譯解. 東武遺藁 海東醫學社, 서울, 1999.
7. 李敏鳳. 장문경 譯. 金匱秘方. 海東醫學社, 서울, 1999.
8.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서울, 2002:47-48.
9. 李濟馬 原著, 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서울, 1995:54-56.
10.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서울, 1997:74.
11. 孫祥坤, 金達來 儒學者들의心性情과李濟馬의性情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1-39.
12. 趙晃盛. 性情과表裏證과의關係.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1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1994;6(1):81-87.
14. 高우석,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의 발생기전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2):44-57.
15. 곽창규, 손은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 體質病證중 表病과 裏病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1.
16. 朴恩慶.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66-72.

K C I